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교
http://www.dkc.ac.kr 062-520-2555 SMART 동강대학교

광주 15/28℃ 목포 14/20℃ 여수 16/22℃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단기 4345년 (음력 3월 2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231호 1판 2012년 5월 15일 화요일

"부정·폭력…몰염치 진보에 배신감"

광주·전남 통합진보당 사태 비난 고조

"대선 망칠 것"…야권연대 파기 요구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선거 논란과 폭력 사태를 바라보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눈길이 싸늘하다.

연말 대선의 정권 교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우려와 함께 '몰염치' 진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통합진보당이 혁신적인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으로 고사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4일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강기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경쟁 부문 비례대표 14명의 사퇴를 의결했다.

또한, 폭력 사태 방치와 전자투표 절차를 문제 삼은 장원섭 사무총장의 해임을 의결했으며 장 사무총장은 이날 사퇴했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단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진행된 전자투표를 이날 오전 10시 마감한 뒤 11시에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날 "당 혁신 결의안이 재석 중앙위원 545명 가운데 찬성 541명, 혁신 비대위 구성안건이 찬성 536명으로 각각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 대표단은 퇴진하게 됐으며 통합진보당은 당분간 강기갑 의원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전자투표를 통한 중앙위 결정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원천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같은 통합진보당의 진흙탕 싸움에 연말 대선을 앞두고 야권은 물론 지역 민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내외에서는 "통합진보당과 연대가 오히려 대선을 망칠 것"이라는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권연대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 정권교체를 하자는 것인데, 이런 상태로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의 해체 등을 거론하며 연말 대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이번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4·11 총선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에 이어 제2당의 위치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의 배신감 등 후폭풍이 심각한 상황이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광주 18.6%, 전남 14.7%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각각 1위,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지난 10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 뿌리를 내렸던 진보 정당의 기반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통합진보당 진영도 곤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택·윤난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총선에서 야권 단일후보 당선과 광주의 제2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비례대표 선출에서의 부정선거와 폭력 사태로 죄송함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하지만, 혁신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수돗물 오염사태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14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중흥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저장탱크에 담긴 오염된 수돗물을 빼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수돗물 오염 대란은 人災

강시장 사과…상수도본부장 전격 경질

12일 발생한 광주지역 수돗물 오염사태〈**광주일보 14일자 1면**〉는 용연정수장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피해를 키운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와 정수장 측은 특히 수돗물 오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무려 7시간이 지나서야 시민들에게 위험을 공지하는 등 대책이 초동단계에서부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용빈 기술부장은 14일 광주시청에서 수돗물 오염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정수장 근무자들이 수돗물의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서 경보가 울리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다 상부 보고 등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주말인 12일 오후 1시께 정수용 약품인 응집제(PAC)가 과다 투입돼 수돗물의 수소이온농도(pH)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7급 직원 한 명이 수질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 상부에 보고도 없이 자체적으로 4시간 여 동안 소석회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자들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시민에게 공지하고 오염 수돗물 배수작업에 나서는 등 대책을 강구했다면 오염된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되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4일 정수약품 과다 투입에 따른 수돗물 오염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수돗물 오염사태는 예방부터 대처방식, 원인분석, 배출작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낸 인재(人災)였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상수도본부가 1등 기관 평가, 주부수질평가단 시행, 빛고을 수 음용 관리 등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한순간 실수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강 시장은 이호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총무과 대기발령하고 후임에 이병렬 자치행정국장을 임명했다.

한편 문상필(민주·북구3)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15일 용연정수사업소와 남광교 일대 현장방문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필요할 경우 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알림

광주일보사는 창사 60주년을 맞아 국립발레단(단장 최태지)의 '백조의 호수'를 공연합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012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 페스티벌' 참가작으로 무대에 오르는 '백조의 호수'는 전 세계 발레 마니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클래식 명작 발레입니다.

특히 올해 창단 50주년을 맞는 국립발레단은 '지젤' 등 고전발레뿐 아니라 현대 발레 '차이코프스키-삶과 죽음의 미스터리'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공연하고 있는 정상급 단체로 광주 무대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만으로도 관객들에게 황홀경을 안겨줄 '백조의 호수'는 24마리의 백조가 펼치는 환상적인 군무, 광대의 36회전 등 무용수들의 기량을 만끽할 수 있는 명장면들이 가득합니다.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볼쇼이 버전의 안무로, 국립발레단의 정상급 주역 무용수들이 출연하는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 시 | 2012년 7월 6일(금) 오후 8시, 7월 7일(토) 오후 5시
| 장 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사**, 광주문화재단
| 예 매 | 인터파크 | 문 의 | 062-220-0541

오늘의 여수엑스포

▶ 관련기사 2·3면

◇현대차와 함께 하는 서울시향 축하공연, 빅오 해상무대(오후 8시)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빅오 해상무대에서 감동의 연주를 들려준다. 드뷔시의 '바다'(La Mer),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6번 중 2·3악장 등 박람회 관람으로 쌓인 피로를 풀어 줄 다채로운 곡을 선사한다.

◇국가의 날-아르메니아, 다목적홀(오전 10시)
◇지자체의 날-전주시, 천막극장(오후 1시30)
◇기후변화 심포지엄, 엑스포홀(오전 10시)
◇엑스포 가요 페스타(015B), 천막극장(오후 8시)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VIP 7차 회원모집

회원특전 선택 01 분양금액 1억 7천 5백만원
1. 주 말 부 킹 – 월 4회(부킹자 정회원) – 잔여시간 정회원 추천인 우선부킹 가능
2. 정 회 원 1명 – 그린피 면제(주중/주말) – 동반자 3인 준회원대우(주중/주말, 년 50회)
3. 지명회원1인 – 그린피 면제(주중/주말) – 동반자 3인 준회원대우(년 24회)
4. 정회원 및 동반자 3인 골프텔 40%할인

회원특전 선택 02 분양금액 1억 7천 5백만원
1. 주 말 부 킹 – 월 4회(부킹자 정회원) – 잔여시간 정회원 추천인 우선부킹 가능
2. 정회원 1명 – 그린피 면제(주중/주말) – 동반자 3인 준회원대우(주중/주말, 년 50회)
3. 무기명카드 2매 발급 – 카드 소지자 그린피 면제(2매 합계 총 84회)
4. 정회원 및 동반자 3인 골프텔 40%할인

■ 코스규모 : 27홀, Par 108(전장 : 9,635m)
■ 모집인원 : 선착순 30구좌
■ 모집기간 : 2012년 5월 31일까지
■ 수납은행 : 광주은행 727-127-005215
※ 예금주 : (주)광주일보사함평다이너스티C.C

(단위 : 천원)

구 분	분양가	납입방법	
		계약금	잔 금
개 인	175,000	17,500	157,500
법 인	350,000	35,000	315,000
납입시기		계약시	계약후 1개월내

구비서류
■ 입회신청서(소정양식) ········ 1부
■ 사진 ········ 3매
■ 개인/주민등록증 ········ 1매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매
■ 주민등록등본 ········ 각 1매

가 | 입 | 안 | 내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주)광주일보사 Tel. 062-227-9600 Fax. 062-227-9500
■ 지사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 1-6번지 함평다이너스티CC Tel. 061-320-7777 Fax. 061-320-7710